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한 기초

발신 : 정책국

수신 : 총여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1997년 10월 14일

● 권력 독점 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시발점으로서의 총여학생회를 사고하며, 이것을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항한 반체제적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한다.

1. 권력 독점 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가 아닌,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시발점으로서의 총여학생회를 사고하며, 이것을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학생회로서의 총여학생회에 주어진 압박에 이기지 못해 작년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은 몇몇의 단체들은 '여성자치연합'을 결성했다. 여성자치연합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총여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대 여학우모임의 주도로, 봄에 있었던 모교 선거의 반여성적 복음주의 선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 학내 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 연합체로서 자리매기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총여학생회를 사고한다. 총여학생회를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총여학생회를 방치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일 년 우리가 자치조직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총여학생회를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분명 대의제 선거를 통해 뽑혀진 여학우들의 대표체이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주의적 학생회 구조 속에서는 이 '대표체'라는 것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우들을 억압하고 있다. 총여학생회를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은 대표성과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재구성,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대표라는 것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위에서 하달되는 방식의 권력, 포섭과 배제의 원리에 의거한 권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5000여학우들의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는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체로서의 총여가 아닌, 여성주의적 직접민주주의적 권력이 보다 잘 순환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유통구조를 만들어내는 총여이다.

2.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항하여 반체제적¹⁾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한다.

올해 우리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가 거세지면서 또한 반여성적인 제도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목격하였다. 올해 노동법 개악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주변화될 수 밖에 없는 자본의 논리를 목격하였으며, 이에 맞물려 '고개 숙인 아버지' 신드롬이 등장했다. 또한 여성의 국

1) '반체제'는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의 이익에 따라 재단하고 억압하는 미인대회가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전개되면서 '이승희' 신드롬은 현 체제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은 여전하며 순결이데올로기의 강화 때문에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노동의 유연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 속에서 또 다시금, 언제나 그랬듯이 피해보는 계층은 여성들이다.

이와 더불어 마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마치 여성들은 이제 해방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 상업주의적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기만적으로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제는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1997년 말 남한 사회에서의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라고 부른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발달하면 더욱 발달할수록 그 억압의 방식이 더욱 교묘해진다.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여성들을 억압한다. 체제의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할 것이며 진정 여성해방을 위한 페미니즘을 복원하여 반체제적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